

심리적 부검 연구에 관한 논고: 한국 심리적 부검 연구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 준 혁
(성균관대학교)

한국의 높은 자살률로 인해 심리적 부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한국에서 수행된 심리적 부검 연구방식의 특성과 한계점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적인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방식에 따라 기존에 수행된 총 15편의 심리적 부검 연구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문헌들을 분류했으며, 연구물 간 상호 비교를 위해 심리적 부검의 근본 취지와 본래적 수행방법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만들었다. 분석틀은 ‘연구의 유형’, ‘연구의 신뢰성 확보노력’, ‘연구자의 역할’로 구성했다. 연구결과, 심리적 부검에 관한 현실적용 연구의 부족,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 연구자의 역할 부재를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부검 연구의 한계점 극복을 위해 현실적용 연구 및 심층면담 연구의 확산, 심리적 부검의 특성에 맞는 엄격성 확보 전략 수립, 연구자의 직접적인 면담수행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자살, 심리적 부검, 한국 심리적 부검 연구, 문헌연구

이 논문의 초고는 2014년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 투고일: 2015.1.28 ■ 수정일: 2015.4.7 ■ 게재확정일: 2015.5.7

I. 서론

‘효경(孝經)’에 이르길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손, 효지사야(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라 했다. 이처럼 한국인은 예부터 함부로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孝)의 시작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처럼 심상치 않은 행위가 심상한 행위로 바뀌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에서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년째(2003~2012년) 자살에 의한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OECD, 2014).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 거론된 개념이 바로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이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 사건이 일어난 이후 고인과 연관된 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 목격자, 심지어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상당사, 담당 의사, 사회복지사 등) 등으로부터 얻은 구술 정보와 유서, 편지, SNS 기록물, 상담기록물, 경찰 조사자료 등의 모든 물리적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자살 여부와 자살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Shneidman, 2004).

1991년 심리적 부검에 대한 필요성이 국내 학계에서 처음 논의될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문국진, 1991).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심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검색서비스(미디어가온)를 통해 심리적 부검 관련 기사들을 검색한 결과¹⁾ 2002년에 와서야 처음 심리적 부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민동용, 2002). 이후 자살률 증가와 함께 심리적 부검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2009년 정부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성인의 자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적 부검 연구’ 방식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면서 심리적 부검 연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심리적 부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학계에서도 심리적 부검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선현, 2013; 문국진, 1991; 아주대학교, 2013; 서종한 외, 2012; 송혜진, 2013; 신성원, 2005, 오윤성, 2010, 이구상 외, 2012; 전충현·임석현, 2012; 최광현, 2008; 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황태운 외, 2014). 더욱이 심리적 부검이

1) 기사통합검색서비스(www.mediagaon.or.kr) 이용 당시(2014년 9월 2일) 사용한 검색 주제어(key word)는 ‘심리 부검’, ‘심리적 부검’, ‘심리학적 부검’이었으며, 추출된 기사들에 대한 정렬 순서는 ‘오래된 순’으로 조절하였다.

언론 보도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²⁾하고 있음을 봤을 때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심리적 부검 연구는 그동안 어떻게 수행되어 왔는가? 지금까지 수행된 심리적 부검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존 연구들이 지향하는 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심리적 부검을 주제로 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주로 심리적 부검에 대한 소개 및 적용(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한 연구(김선현, 2013; 문국진, 1991; 신성원, 2005, 오윤성, 2010, 전충현·임석현, 2012; 최광현, 2008; 고제원, 2014; 권호인 외, 2014; 황태운 외, 2014)와 심리적 부검을 현실에 적용한 연구(아주대학교, 2013; 서종한 외, 2012; 송혜진, 2013; 이구상 외, 2012; 한국자살예방협회, 2009)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볼 때 아직 한국에서 심리적 부검을 실제로 적용한 연구가 부족하고 단순히 소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심리적 부검을 현실에 적용한 연구들은 계량적 분석을 통해 자살 관련 특성들을 유형화 하거나(아주대학교, 2013; 서종한 외, 2012; 이구상 외, 2012) 조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사례별로 단순히 정리하는 수준(송혜진, 2013; 한국자살예방협회, 2009)에 머물고 있다. 먼저 수집된 자료를 계량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수치로 전환하고 유형화시킬 경우 자살자의 전반적인 특성과 자살 원인에 대한 경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계량화했을 때 개별 자살자들의 삶에 대한 많은 정보를 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사례별로 정리하여 제시할 경우 고인들이 겪었던 개별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다양한 이론적 검토 없이 상황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놓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지향성이 자살원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보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 특히, 이는 심리적 부검의 근본 취지와 목적 그리고 방법론적 특성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심리적 부검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아직 현실적용 연구가 부족하다는 감은 있으나, 계량화 및 단순화를 지향하는 심리적

²⁾ 심리적 부검과 관련된 기사는 2002년 단 한 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5년 간(2009년 9월 4일 ~ 2014년 9월 3일) 심리적 부검을 제목으로 작성된 기사만 68건이 검색되었다. 더욱이 이 중 25건이 최근 1년(2013년 9월 3일 ~ 2014년 9월 3일) 사이에 작성되었다.

부검 연구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굳어지기 전에 심리적 부검 연구의 근본 취지와 목적 그리고 본래적 수행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에서 수행되는 심리적 부검 연구의 한계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필자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국의 심리적 부검 연구에 관한 논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심리적 부검의 본질적 특성

1. 심리적 부검의 근본 취지와 목적

1960년대 초 ‘심리적 부검’이라는 용어가 처음 세상에 등장할 당시 심리적 부검의 목적은 매우 간단했다(Shneidman & Farberow, 1965). 의학적 사인(死因)은 밝혀졌으나, 죽음의 형태가 불명확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³⁾ 자연사(Natural Death)인지, 사고사(Accidental Death)인지, 자살(Suicide)인지, 아니면 타살(Homicide)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심리적 부검이다(문국진, 1991; Shneidman, 2004).

심리적 부검은 최소한 세 가지 뚜렷한 질문을 통해 죽음의 형태와 자살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해준다(Shneidman, 1977). 첫째, 왜 그 사람이 그러했는가?(Why did the individual do it?)를 묻는 것이다. 이것은 죽음의 형태가 모든 합당한 증거들에 의해 명확하고 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 자살의 경우 심리적 부검은 그 행위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무엇이 고인을 죽음으로 이끌었는지를 발견하게 해준다(Shneidman, 1977). 즉, 죽음의 형태는 명백하지만, 아직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 부검을 시행함으로써 고인의 평소 인생관, 심리적 변화, 사회적 관계, 사망 당시 처한 상황 등을 밝힐 수 있게 된다(문국진, 1991: 9).

³⁾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망사건은 국가의 검시(檢屍)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종종 죽음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사망 원인의 5-20% 정도는 정확히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다. 특히, 사고사와 자살은 그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검시자의 재량에 의해 죽음의 형태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체적 부검에 의한 판단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심리적인 분석도 중요해진다(문국진, 1991: 9; 신성원, 2005: 233).

둘째, 고인이 어떻게 해서 사망했는가? 그리고 왜 그 특정 시간에 사망하였는가?(How did the individual die? when-that is, why at that particular time?)에 관해 묻는 것이다. 자연사의 경우 죽음은 장기적으로 찾아오며, 개인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적 부검은 그가 왜 그 시간에 죽었는지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돕는다. 즉, 개인의 심리상태와 사망시간 사이의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죽음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생활하는 한 노인이 있다. 그는 비록 늙은 몸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매우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자신의 생일에 자식들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그들을 기다렸다. 그러나 막상 생일날이 되었지만, 자식들은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 노인은 식음을 전폐하고 아주 최소한의 치료만 받았다. 그리고는 며칠 후 사망하고 말았다. 이러한 경우 심리적 부검을 통해 사망 당시 개인의 심리상태와 사망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고인의 죽음에 대해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Shneidman, 1977).

셋째, 무엇이 가장 가능성 있는 죽음의 형태인가?(What is the most probable mode of death?)에 관한 질문이다. 사인은 확실하지만 죽음의 형태를 확실히 알 수 없을 때, 심리적 부검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추락사의 경우 실족사인지, 스스로 몸을 던진 자살행위인지, 아니면 누군가 밀어서 떨어진 타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신체적 부검은 추락사로 판단할 수 있으나, 죽음의 형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고인이 생존에 가까이 지내던 가족, 친지, 친구, 동료, 목격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사망 당시 고인이 처했던 상황 또는 심리상태를 파악함으로써 무엇이 가장 가능성 있는 죽음의 형태인지 파악할 수 있다(문국진, 1991).

이와 같은 특성들로 인해 심리적 부검은 민사소송이나 군사법정에서도 사용되어 극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Shneidman, 2004). 실제로, 최근(2013년 12월 19일) 서울 고등법원 판결에서 국내 최초로 심리적 부검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제1심)의 결과를 뒤집고,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자살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황태윤 외, 2014).

특히, 죽음의 형태가 자살이 분명할 경우, 고인이 죽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유가족 및 지인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의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이 정서적 반응은 보통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때로는 두 가지 감정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을 민감하게 고려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심리적 부검의 윤리적 측면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정서적 반응에 대한 고려는 뒷부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필자가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 정서이다. 이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면담 참여자들(유족 및 지인)을 이끌어 주는 것이 심리적 부검의 또 다른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은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심리적 부검에 관해 연구한 Shneidman(2004)의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일에 관해 무언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고자 노력할 것이고, 그녀가 그 사실에서 통찰과 위안을 얻기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Shneidman, 2004: 28).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의미 발견과 죄책감 감소, 자살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타적 참여, 심리적 지지 획득, 타인에 대한 애착 재확립, 현실적으로 상실감 수용, 높아진 자기 이해 등 연구 참여자에게 치료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Henry & Greenfield, 2009).

앞서 제시한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심리적 부검의 근본 취지와 목적은 우선 죽음 형태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자살이 분명한 경우라면 자살 원인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 통찰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방법론적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연구 방법으로서의 심리적 부검

심리적 부검의 연구방법은 면담자료, 유서, 개인 기록물 등을 분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심리적 부검이란 용어를 처음 고안한 Shneidman의 연구 역시 질적 연구 방법이었다(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10). 질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귀납적 방법에 의해 연구가 진행된다. 이는 개별적 경험이 발생하는 상황적 조건에 대한

인위적 조작 없이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개인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유기용 외, 2012: 4). 이러한 경험의 세계는 주로 언어를 통해 드러난다. 그래서 심리적 부검에서의 면담은 일상적인 대화로부터 출발하며, 연구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Shneidman, 1977). 그리고 이러한 면담은 기본적으로 자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파악되어야 할 점점 사항들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Shneidman(1977)은 연구자가 면담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16가지 목록으로 정리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1 과 같다.

표 1. 심리적 부검을 위한 조사항목

1. 사망자의 인적 정보(이름, 나이, 주소, 결혼상태, 종교, 직업 등)
2. 죽음에 대한 세부사항(원인 또는 방법 그리고 다른 관련항목들을 포함함)
3. 사망자의 과거력에 대한 간단한 개요(예: 형제자매, 결혼생활, 의학적 질병, 의학적 치료, 심리치료, 자살시도)
4. 사망자 가족의 사망력(Death History: 자살, 암, 다른 치명적 질병, 사망연령 등)
5. 사망자의 성격과 삶의 방식에 대한 설명
6. 스트레스, 정서적 혼란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 패턴과 불안정의 주기
7. 최근(지난 며칠부터 12개월 까지)의 속상함, 압박, 긴장 또는 예상되는 마음의 갈등
8. 사망자의 전체 삶의 방식과 죽음에서 술 또는 약물의 역할
9. 사망자의 대인관계에 대한 특징(의사와의 관계도 포함함)
10. 죽음, 사고 또는 자살과 관련된 사망자의 환상, 꿈, 생각, 예감 또는 두려움
11. 사망 전 사망자의 변화(습관, 취미, 식사, 성적 패턴 그리고 다른 삶의 일상들)
12. 사망자의 '생활 측면(Life Side)'에 관한 정보(예: 생활 향상, 성공, 계획)
13. 자살에 대한 사망자의 의도 평가(Assessment)
14. 치사율 평가
15. 사망자의 죽음에 대한 참여자(정보제공자)의 반응
16. 기타 언급, 특별한 특징 등

자료: Shneidman(1977)이 제시한 조사 항목을 연구자가 표로 정리함.

이렇게 구성된 최소한의 조사항목들은 연구의 상황과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되어 사용된다. 실제 한국에서도 정부 주도하에 심리적 부검 연구가 수행되면서, Shneidman(1977)이 제시한 점검사항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한 후 사용하고 있다(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아주대학교, 2013). 이렇듯 기본적인 점검 사항을 따라감으로써 연구자는 참여자의 언어를 통해 드러난 고인의 경험 세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이것이 “말하기(Talking to)”의 시작이며, 심리적 부검에서의 말하기는 대화, 면담, 정서적 지지, 일반적인

질문들 그리고 경청의 혼합물로서 조심스럽게 수행되어야 한다(Shneidman, 1977).

면담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자료수집 도구로서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일반적인 질적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부검 연구에서도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능력, 경청, 적응력과 융통성, 연구하려는 이슈에 대한 이해, 편견 제거 등 연구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이원욱, 2011: 170). 특히, 면담에 대해 느끼는 상호 간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부드러운 면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담 시작에 앞서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Rapport)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면담은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자의 언행은 참여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고인과 사별한 참여자의 정서적인 고통을 늘 유념하면서 조심스럽게 면담을 이끌어 가야 한다. Shneidman(1977) 역시 스스로 제시한 점검 사항들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며, 연구 참여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질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면담과 더불어 심리적 부검에서는 유서, 편지, 일기 등 고인의 죽음과 관련된 개인 기록물을 수집하여 분석하게 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통해 연구자는 다양한 관점에서 고인의 삶을 재구성하고 사망 당시 고인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고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면담 및 자료수집 과정에서 심리적 부검 연구자는 주변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조언을 얻는다. 이는 연구의 엄격성(Rigor)과 매우 연관성이 높다. 이러한 연구의 엄격성⁴⁾은 질적 연구이든 양적 연구이든 상관없이 모든 실증연구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Padgett, 1998: 169). Shneidman(2004) 역시 자신이 수행한 연구에서 단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8명의 자살예방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얻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심리적 부검 연구는 이론적으로 보강되고, 신뢰성 있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여기까지의 기본적인 절차는 대부분의 심리적 부검 연구에서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분석과정에서는 접근 방식이 나누어진다. 이때의 분석 방법은 크게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으로 나뉘게 된다.

먼저 양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계량형 심리적 부검 연구들은 대부분 Robins와 그의 동료들(1959)의 연구로부터 기인한다(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5). Robins와 그의 동료

⁴⁾ Padgett(1998: 180)은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한 여섯 가지 전략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관계의 형성, 다원화,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 연구대상을 통한 재확인, 예외적 사례분석, 그리고 감사자료 남기기를 제안하였다.

들(1959)은 한 지역에서 발생한 134건의 자살 사건에 대해 면담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들을 비율별 그리고 항목별로 유형화시켜 대부분의 자살자가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서중환 외, 2012; 전충현·임석현, 2012; 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최근 한국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심리적 부검 연구(아주대학교, 2013) 역시 양적 분석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질적 분석을 적용한 심리적 부검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며, 선행연구도 많지 않다(송혜진, 2013; 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그러나 국외에서는 질적 방식을 적용한 심리적 부검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Dyregrov et al., 2011; Hawgood et al., 2010; Kizza et al., 2011; Kizza et al., 2012a; Kizza, 2012b; Kizza et al., 2012c; Kjølseth et al., 2010; Lindeman et al., 1998; Owens et al., 2008; Owens et al., 2009; Owens et al., 2005).

그렇다면 한국에서 심리적 부검 연구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 상태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분석의 실마리

앞선 논의에서 제시했듯이 심리적 부검의 근본 목적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통찰에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자들은 질적 방식으로 면담을 수행하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 말해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게 된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모두 가능하다. 더불어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는 동료 연구자의 조언을 얻는 등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부검의 본질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우선 한국적 상황에서 심리적 부검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으며,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심리적 부검 수행을 위한 연구자의 역할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네이버 학술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심리적 부검을 주제로 한 연구문헌 총 15편(학술지 13편, 연구보고서 2편)을 내려 받았으며(2015년 4월 5일 기준), 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표 2 참조).

표 2. 심리적 부검을 위한 조사항목

번호	연도	저자 및 기관	제목	연구물 성격	비고
1	1991	문국진	자살의 증명과 심리부검	학술논문	
2	2005	신성원	심리부검 연구의 실무적 활용 및 윤리적 고려사항	학술논문	
3	2008	최광현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의 필요성에 관한 제언	학술논문	
4	2009	한국자살예방협회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및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서비스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5	2010	오윤성	A Study of Relevant Factors for an Effective Psychological Autopsy in Military	학술논문	
6	2012	서종한 외	한국 자살사망자 특징: 사례-대조 심리적 부검 연구	학술논문	
7	2012	이구상 외	자살사망자의 축약 심리적 부검에 관한 연구	학술논문	
8	2012	전충현·임석현	군자살자의 자살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부검 적용 방안	학술논문	
9	2013	김선현	심리부검에서 임상미술치료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학술논문	
10	2013	송혜진	군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 해군 장병을 중심으로	학술논문	
11	2013	아주대학교	심리적 부검 조사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12	2014	고재원	정신분석적 심리부검을 통한 자살방법의 연구	학술논문	
13	2014	권호인 외	청소년 자살자에 대한 심리적 부검 방법론에 대한 고찰	학술논문	
14	2014	황태윤 외	‘심리적 부검에 의한 공무상 질병의 판단	학술논문	
15	2015	나경세 외	심리부검: 우리나라에서 향후 방향에 대한 검토 및 고찰	학술논문	

2. 분석 틀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방식에 따라 분석 틀을 구성했다(Jesson & Lacey, 2006). 분석을 위해 우선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기존 문헌들을 분류했으며, 연구물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심리적 부검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중심으로 분석 틀을 구성했다. 심리적 부검과 관련된 주요 문제는 2장에서 제시한 '분석의 실마리'에 기초한다. 따라서 총 15편의 연구문헌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심리적 부검 연구를 '연구 유형', '연구의 신뢰성 확보노력', '연구자의 역할'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했다.

IV. 한국 심리적 부검 연구의 특성

1. 자료에 대한 계량화와 객관적 사실 기술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심리적 부검 연구는 아직 소개 및 활용방안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소개형 연구'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심리적 부검을 현실에 적용한 연구들은 주로 수집된 자료를 계량화하거나 단순하게 기술하고 있으므로 '계량형 연구'와 '사실 기술형 연구⁵⁾'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5) 수집된 자료들이 연구물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법론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심리적 부검은 질적 연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방법론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는 자료 수집 이후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가 연구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해 보고하는 기술 작업 이외에 현상의 구조를 확인하는 분석 작업, 그리고 현상의 의미를 확인하는 해석 작업이 필요하다(조용환, 1999: 37).

표 3. 심리적 부검 연구의 유형분류

소개형 연구		현실 적용 연구			
		계량형 연구		사실 기술형 연구	
문국진 (1991)	자살의 증명과 심리 부검	서종한 외 (2012)	한국 자살사망자 특징: 사례-대조 심리적 부검 연구	한국자살예방 협회(2009)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및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서비스 구 축방안
신성원 (2005)	심리부검 연구의 실 무적 활용 및 윤리적 고려사항	이구상 외 (2012)	자살사망자의 축약 심리적 부검에 관한 연구	송혜진(2013)	군 자살자에 대한 심 리부검; 해군 장병을 중심으로
최광현 (2008)	심리부검의 필요성 에 관한 제언	아주대학교 (2013)	심리적 부검 조사		
오윤성 (2010)	A Study of Relevant Factors for an Effective Psychological Autopsy in Military				
전충현·임석현 (2012)	군자살자의 자살원 인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부검 적용 방안				
김선현 (2013)	심리부검에서 임상 미술치료 활용방안 에 관한 연구				
고제원 (2014)	정신분석적 심리부검 을 통한 자살방법의 연구				
권호인 외 (2014)	청소년 자살자에 대한 심리적 부검 방법론 에 대한 고찰				
황태윤 외 (2014)	심리적 부검에 의한 공무상 질병의 판단				
나경세 외 (2015)	심리부검: 우리나라 에서 향후 방향에 대 한 검토 및 고찰				
10건		3건		2건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한국에서의 심리적 부검 연구는 ‘소개형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소개형 연구의 경우 심리적 부검에 대한 개념설명, 심리적 부검의 발전 과정, 심리적 부검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연구들은 심리적 부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심리적 부검을 학문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심리적 부검 방법에 관한 다양한 개선점들을 제시함으로써 심리적 부검 방법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소개형 연구의 특성상 심리적 부검이 현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심리적 부검을 현실에 적용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현실 적용 연구’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관련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심리적 부검을 현실에 적용한 연구들은 계량적 분석을 통해 자살 관련 특성들을 유형화 하거나(이주대학교, 2013; 서종한 외, 2012; 이구상 외, 2012) 조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사례별로 단순히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송혜진, 2013; 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먼저 양적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제시하거나 수집된 자료를 단순화시킬 경우 자살 사망자의 전반적인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정신질환, 경제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음주 등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더욱이 이러한 연구들은 객관성, 보편성 등의 일반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자료가 분석될 경우 고인들이 살아온 삶에 관한 많은 정보가 추상화된 변수로 묶어내는 과정에서 유실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심리적 부검의 목적에서도 설명했듯이 심리적 부검은 비단 죽음의 형태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남겨진 사람들(유족 및 지인들)에게 고인의 죽음에 대해 통찰 할 수 있는 기회와 위안을 주는 것 역시 심리적 부검의 분명한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계량화되고 유형화된 연구결과를 통해 유가족들이 고인의 죽음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고인의 죽음을 몇 개의 특성으로 정리할 경우 자살의 단계별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생사(生死)는 본질적으로 모든 생명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다.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것이 생명현상의 본질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의 죽음은 개별적 사건으로 존재하며,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의 죽음을 대신 경험할 수 없다(Heidegger, 1979: 321).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각자성을 무시한 채 과연 개별적 자살사건들을 하나의

기계적인 틀 안에 넣고 주스를 짜듯이 새로운 가공물로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에 대해 자문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일정한 유형에 맞춰 한 인간의 인생을 재단한다면 이는 시체를 해체하는 일반 부검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반면, 수집된 자료를 사례별로 정리한 연구의 경우 고인의 삶을 재구성함으로써 고인의 성격, 과거력, 사망 전 주요사건, 변화된 행동 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고인이 처했던 개별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는 자살과 관련된 사건들이 고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자의 해석적 작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 자살 사례들로부터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미들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인이 살아온 삶이 단편적으로 서술되고 있어, 고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는 것이다. 고인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인의 삶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역시 한 인간이 살아온 삶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고인의 삶 전반을 지배했던 삶에 대한 태도와 삶의 방식, 문제 상황에 대한 반응기제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삶을 다양한 관점(다양한 연구 참여자, 물리적 자료, 동료 연구자 등)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생애사적 시각을 견지한 상태에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2.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

심리적 부검을 현실에 적용한 기존 국내 연구들(이주대학교, 2013; 서종한 외, 2012; 송혜진, 2013; 이구상 외, 2012; 한국자살예방협회, 2009)에서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이론적 논의 측면과 엄격성 확보를 위한 노력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이론적 논의 측면에 있어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심리적 부검에 대한 설명, 관련 선행연구, 그리고 적용사례들을 간략히 제시할 뿐, 자살에 관한 별다른 이론 검토 없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심리적 부검 연구가 자살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살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살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단지 이구상 외(2012)의 연구에서 간략히 서술되었을 뿐 나머지 연구들에서는 자살과 관련된 별다른 이론적 논의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표 4. 선행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현실 적용 연구	이론적 논의		엄격성 확보 노력
	자살관련 이론 검토	PA 문헌 검토	
서종한 외(2012) 한국 자살사망자 특징: 사례-대조 심리적 부검 연구		심리적 부검에 대한 설명, 관련 선행연구(국내, 국외) 및 적용사례 제시(핀란드, 미국)	연구결과에 대한 심층 토의
이구상 외(2012) 자살사망자의 축약 심리적 부검에 관한 연구	심리적, 사회학적, 생물학적 관점 논의	심리적 부검에 대한 설명, 관련 선행연구(국내) 및 적용사례 제시(핀란드, 일본)	
이주대학교(2013) 심리적 부검 조사		심리적 부검에 대한 설명 및 적용 사례제시(미국)	
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및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서비스 구축방안		심리적 부검에 대한 설명 및 적용 사례제시(미국, 핀란드, 일본)	
송혜진(2013) 군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 해군 장병을 중심으로		심리적 부검에 대한 설명 및 적용 사례제시(핀란드)	
합 계	1건	5건	1건

비록 심리적 부검의 기능적인 특성상 자살원인을 밝히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연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도출된 결과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위해서는 이론적 틀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특정한 이론적 틀 없이 현상과 경험을 기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점은 질적 연구, 양적 연구할 것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김영천, 2012: 209). 왜냐하면, 연구자에게 있어 이론을 통해서 만나는 세계와 별다른 이론 없이 만나는 세계는 분명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가령 밤하늘의 별 하나를 보더라도 천체물리학자와 보통사람들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실제로 천체물리학자가 아닌 우리는 단지 밤하늘에 별들이 그저 아름답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주에 대한 이론을 많이 알고 있는 천체물리학자의 눈은 다르다. 그들은 별이 왜 빛나는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등의 많은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론의 힘이다. 따라서 이론은 학문적 탐구의 안내자 역할을 한다. 물론 이론에 기대지 않고, 연구자의 편견과 선입관에 대한 ‘괄호

치기(bracketing)를 통해 최대한 귀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내부자적 관점을 연구에 반영할 수 있다(Hatch, 2002: 86). 그러나 순수하게 귀납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생성한 연구결과와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구결과와 다른 문헌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Glaser, 1992: 137). 따라서 현실에서 아무런 이론적 관점 없이 현상을 본다는 것은 현미경 없이 미생물을 관찰하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학문적 성장은 한 명의 천재가 가능하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제시되고, 반박되며, 다시 개선되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심리적 부검 연구가 학문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론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이해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이론적 고민 없이 심리적 부검을 수행하게 되면, 단순히 드러난 고인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물론 이론적 틀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연구자의 시선은 이론적 틀에 가려져 현상이 드러내는 다양한 역동의 측면을 볼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빛이 한 곳만 응시하도록 이끄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연역적 과정과 귀납적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고인의 삶과 죽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자살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더욱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심리적 부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고인의 죽음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관련 주제에 대한 심층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자칫 지나치게 쉬운 개별적 삶의 궤적들을 이론적 민감성⁶⁾을 갖고 신중한 자세로 살펴볼 수 있다.

연구의 엄격성 측면을 살펴보면 서종한 외(2012)의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관계 형성, 동료집단의 조언, 연구 참여자를 통한 재확인 등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한 전략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는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론 검토와 마찬가지로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할 것 없이 모든 실증 연구에서 필수적이다. 더욱이 심리적 부검 연구에서의 면담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처럼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할 수 없다. 단지 신뢰도와 타당도 없이 연구결과를 계량화하여

⁶⁾ 이론적 민감성은 자료의 미묘한 의미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고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개인의 통찰력과 관련된다. 이러한 민감성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다양한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0; Charmaz, 2006).

분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부검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엄격성 확보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때야 비로소 심리적 부검 연구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해 질 것이다.

3. 연구자의 역할 부재

질적 연구의 특성상 심리적 부검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면담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면담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연구자가 직접 면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표 5. 선행연구의 면담방식

현실 적용 연구		직접면담	간접면담
서종한 외(2012)	한국 자살사망자 특징: 사례-대조 심리적 부검 연구	연구자가 직접면담 수행	
이구상 외(2012)	자살사망자의 축약 심리적 부검에 관한 연구		상담원이 상담 종결 후 설문지 작성
아주대학교(2013)	심리적 부검 조사		조사원 선발 및 교육 과정을 통해 조사원이 자료수집
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및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서비스 구축방안		정신보건센터 주관 하에 조사 수행
송혜진(2013)	군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 해군 장병을 중심으로		군 수사관에 의해 수집된 자료 분석
합 계		1건	4건

이처럼 연구자가 직접 면담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물론 연구자가 면담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연구자가 가진 선입견 혹은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사태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유족 및 지인)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다면, 고인들이 왜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해주는 많은 의미 있는 단서들을 놓칠 수 있다. 더욱이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주어진 도구를 사용해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 만들어 내는 “손재주꾼(Bricoleur)”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Strauss, 1960: 21). 그래서 연구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Padgett, 1998: 47).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직접 면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조화된 틀이나 지침이 주는 안정감을 거부하고 제한된 재량의 범위를 확장하여 창의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계량형 연구의 경우 어찌면, 연구자가 직접 면담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심리적 부검의 질문 자체가 구조화된 것이 아니며,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집된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구자의 개입이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현대화 과정에서 실제 생활세계는 다양하게 변화된다. 이러한 이유로 거시적 측면에서의 인간의 행동은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연구자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가설은 변화되는 사회적 현상들을 올바르게 설명해줄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박성희, 2011: 113).

더욱이 한국에서의 심리적 부검은 높은 자살률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되었다(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아주대학교, 2013).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에서의 심리적 부검 연구는 연구 대상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산출에 머물지 않고, 연구 대상에 대한 이해와 반성적 성찰 과정을 통해 문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실행연구의 성격’을 갖는다(유기웅 외, 2012: 124). 결국, 심리적 부검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상호소통이 매우 중요해진다.

무엇보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해석 작업은 본인의 경험을 직접 당사자의 언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고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언어 세계를 통해 당사자의 체험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석에 대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면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행위는, 대상의 체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연구자는 내부자적 관점이 아니라 외부자적 관점을 견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연구에 있어서 외부자적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고인의 삶을 재구성한다는 심리적 부검의 근본 목적에서 본다면 외부자적 관점 못지않게 내부자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필자는 한국의 심리적 부검 연구방식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심리적 부검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한국의 자살률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적 부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며, 아직까지는 소개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의 흐름이 몇 가지 유형(소개형, 계량형, 기술형)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적 부검의 근본 취지와 목적 그리고 본래적 수행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심리적 부검 연구의 한계점을 드러냄으로써 심리적 부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부검의 본질적 특성들(취지와 목적, 연구 방법)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검토 결과를 거울삼아 ‘한국 심리적 부검 연구의 특성들(자료의 계량화와 단순 기술, 신뢰성 확보노력 부족, 연구자의 역할 부재)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한국에서 수행된 심리적 부검 연구들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에 대한 계량화와 단순 기술이다.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심리적 부검 연구는 주로 연구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한 소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심리적 부검을 현실에 적용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심리적 부검을 현실에 적용한 몇 개의 연구들은 주로 수집된 연구 자료를 계량화하거나 단순하게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한 인간의 죽음을 삶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심리적 부검의 근본 목적 내지는 본질적 수행 방법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이다. 심리적 부검을 현실에 적용한 연구들 대부분이 자살에 대해 연구하면서 자살과 관련된 이론 검토 없이 심리적 부검에 대한 선행연구만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자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이구상 외(2012)의 연구에서만 간략히 서술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셋째, 연구자의 역할 부재이다. 심리적 부검은 본질적 특성상 질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고로 연구자는 면담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와 함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부검을 현실에 적용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연구자가 면담에 참여하지 않고 상담원, 조사원, 수사관 등이 대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부검 연구를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심리적 부검에 대해 소개하는 많은 연구물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 사회에 이 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히 제시되었으리라 판단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리적 부검을 현실에 적용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한 한국사회의 분위기상 유족 및 지인들로부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정신보건 관련 기관의 협조 없이 유가족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의 경우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자살예방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협업체계 구성’을 통해 자살률을 낮출 수 있었다(Upanne et al., 1999).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심리적 부검 연구 수행에 있어 경찰, 정신보건기관,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심리적 부검을 현실에 적용한 연구들의 경우 수집된 자료를 계량화하거나 단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부검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리적 부검 연구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무엇인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고자 노력하고, 그 사실에서 참여자가 통찰과 위안을 얻길 바랐던’ Shneidman(2014: 28)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심리적 부검이 자살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라도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 심리적 부검 연구의 진정한 목적은 자살원인 파악에 있는 것이지 도구사용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현상을 파악해야 한다. Shneidman(2004)의 연구를 보더라도 한 사람의 자살원인 파악을 위해 무려 8명의 자살예방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음으로써 이론적 논의를 보충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이론적 논의는 무엇보다 연구의 신뢰성과 연결된다. 또한, 심리적 부검은 질적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방형 질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로 인해 심리적 부검은 양적 연구에서처럼 신뢰도와 타당도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엄격성(rigor)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적 부검에 적합한 특히,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질적 평가 기준과 심리적 부검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고인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참여자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심리적 부검 수행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면담에 참여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면담은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소통의 결과로 연구자와 참여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고로 연구자는 경청, 융통성, 편견 제거 등 '자료수집 도구로서 연구자의 역할에 유념해야 하며, 연구 참여자가 처한 사별(死別)적 상황을 고려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 이로써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열어 밝히는 고인의 경험세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

이제 이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몇 가지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심리적 부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서문에 밝혔듯이 심리적 부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연구가 몇 가지 유형으로 고착되지 않고, 다양하게 시도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문헌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차후 연구의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술 논문과 국가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하였다. 그래서 현장에서 심리적 부검을 시도했던 사례발표 자료들을 담아내지 못했다. 이는 죽음을 다루는 심리적 부검의 특성상 아직 공개된 발표 자료가 부족하고, 사례발표 자료를 연구물로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필자의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심리적 부검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발표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강준혁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의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죽음, 증독, 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이며, 현재 자살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E-mail: junhyeok@skku.edu)

참고문헌

- 고제원(2014). 정신분석적 심리부검을 통한 자살 방법의 연구. *과학수사학*, 8(4), pp.255-264.
- 권호인, 김란, 방수영, 홍현주, 권용실(2014). 청소년 자살자에 대한 심리적 부검 방법론에 대한 고찰. *5(3)*, pp.121-127.
- 김선현(2013). 심리부검에서 임상미술치료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임상미술치료학연구*, 8(2), pp.5-12.
- 김영천(2012). *질적연구방법론 I*.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나경세, 백종우, 윤미경, 김현수(2015). 심리부검: 우리나라에서 향후 방향에 대한 검토 및 고찰.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4(1), pp4-48.
- 문국진(1991). 자살의 증명과 심리부검. *대한법의학회지*, 15(1), pp.1-13.
- 민동용(2002.4.22.) 동반자살로 본 실태-문제점 / 자살사이트 명령 여전히 살아있다. *동아일보*, 29면.
- 박성희(2011). *생애사에 기초한 질적 연구방법*. 서울: 원미사.
- 서중환, 이창환, 김경일, 김성혜(2012). 한국 자살사망자 특징: 사례-대조 심리적 부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pp.323-344.
- 송혜진(2013). 군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 해군 장병을 중심으로 *과학수사*, 7(2), pp.126-137.
- 신성원(2005) 심리부검 연구의 실무적 활용 및 윤리적 고려사항. *한국범죄심리연구*, 1(1), pp.231-252.
- 아주대학교(2013). *심리적 부검 조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편). 2013 자살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pp.205-337.
- 오윤성(2010). A Study of Relevant Factors for an Effective Psychological Autopsy in Military: Focused on the Korea Army Conscripts` Cases. *한국공인행정학회보*, 41, pp.273-300.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이구상, 최민정, 김수정, 박재영, 이명수, 서지혜 외(2012). 자살사망자의 축약 심리적 부검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 3, pp.18-24.
- 이원욱(2011). *연구조사방법의 이해와 적용: 질적연구와 사례연구 방법*. 대구: 형설출판사.

- 전충현, 임석현(2012). 군자살자의 자살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부검 적용 방안. *과학 수사학*, 6(2), pp.79-97.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최광현(2008).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의 필요성에 관한 제언. *주간국방논단*, 1193, pp.08-9.
- 한국자살예방협회(2009). *자살시망자 심리적 부검 및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서비스 구축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황태운, 류문호, 안성호(2014). 심리적 부검에 의한 공무원 질병의 판단. *법과정책*, 20(1), pp.595-618.
-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London: Sage.
- Corbin, J., Strauss, A.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lifornia: Sage.
- Dyregrov, K. M., Dieserud, G., Hjelmeland, H. M., Stration, M., Rasmussen, M. L., and Knizek, B. L. (2011). Meaning-Making Through Psychological Autopsy Interviews: The Value of Participating in Qualitative Research for Those Bereaved by Suicide. *Death Studies*, 35, pp.685-710.
- Glaser, B. G. (1992). *Basic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Emergence Vs. Forcing*. 김인숙, 장혜경 (역)(2014). *근거이론 분석의 기초*. 서울: 학지사.
- Hatch, J. A. (2002).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awgood, J., Milner, A., Leo, D. D. (2010). Farmer Suicide: Data From the Queensland Suicide Register(QSR) and Psychological Autopsy Case Studies. *4th Asia Pacific Reg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 Heidegger, M. (1979). *Sein und Zeit*. 이기상(역)(1998).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글방.
- Henry, M., Greenfield, B. J. (2009). Therapeutic Effects of Psychological Autopsies. *Crisis*, 30(1), pp.20-24.
- Jesson, J., Lacey, F. (2006). How to Do (or not to Do) a Critical Literature Review. *Pharmacy Education*, 6(2), pp.139-148.

- Kizza, D., Hjelmeland, H., Kinyanda, E., Knizek, B. L. (2011). Qualitative Psychological Autopsy Interviews on Suicide in Post-Conflict Northern Uganda: The Participants' Perceptions. *OMEGA*, 63(3), pp.235-254.
- Kizza, D., Hjelmeland, H., Kinyanda, E., Knizek, B. L. (2012a). Alcohol and Suicide in Postconflict Northern Uganda. *Crisis: A Qualitative Psychological Autopsy Study*, 33(2), pp.95-15.
- Kizza, D., Knizek, B. L., Kinyanda, E., Hjelmeland, H. (2012b). An Escape From Agony: A Qualitative Psychological Autopsy Study of Women's Suicide in a Post-Conflict Northern Uganda. *Int J Qualitative Stud Health Well-being*, 7, pp.1-14.
- Kizza, D., Knizek, B. L., Kinyanda, E., Hjelmeland, H. (2012c). Men in Despair: A Qualitative Psychological Autopsy Study of Suicide in Northern Uganda. *Transcultural Psychiatry*, pp.1-22.
- Kjølseth, I., Øivind, Ekeberg., Steihaug, S. (2010). Why Suicide? Elderly People Who Committed Suicide and Their Experience of Life in the Period Before Their Death.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2(2), pp.209 - 218.
- Lindeman, S., Heinänen, H., Väisänen, E., Lönnqvist, J. (1998). Suicide Among Medical Doctors: Psychological Autopsy Data on Seven Case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4(2), pp.135-141.
- OECD. (2014). *OECD Health Data 2014*.
- Owens, C., Lambert, H., Donovan, J., Lloyd, K. R. (2005). A Qualitative Study of Help Seeking and Primary Care Consultation Prior to Suicide.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 55, pp.503-509.
- Owens, C., Lambert, H., Lloyd, K., Donovan, J. (2008). Tales of Biographical Disintegration: How Parents Make Sense of Their Sons' Suicides.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30(2), pp.237-254.
- Owens, C., Owen, G., Lambert, H., Donovan, J., Belam, J., Rapport, F., et al. (2009). Public Involvement in Suicide Prevention: Understanding and Strengthening Lay Responses to Distress. *BMC Public Health* 2009, 9(308), pp.1-9.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유태균 (역) (2005). *사회복지 질적 연구 방법론*. 파주: 나눔.

- Robins, E., Murphy, G. E., Wilkinson R. H., Gassner, S., Kayes, J. (1959). Some Clinical Considerations in The Prevention of Suicide Based on a Study of 134 Successful Suicides. *A Study of Suicides*, 49(7), pp.888-899.
- Shneidman, E. S. (1977). The Psychological Autopsy pp. 42-56 In *Guide to the Investigation and Reporting of Drug Abuse Deaths*. Gottschalk, L. A et al. (Eds). (1981).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1(4), pp.325-340.
- Shneidman, E. S. (2004). *Autopsy of A Suicidal Mind*. 조용범(역)(2014). *심리부검 인터뷰*. 서울: 학지사.
- Shneidman, E. S., Farberow, N. L. (1965). The Los Angeles Suicide Prevention Center: A Demonstration of Public Health Feasibilit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55(1), pp.21-26.
- Strauss, L. C. (1960). *La Pensee Sauvage*. 안정남(역)(1990). *야생의 사고* 서울: KBS사업단.
- Upanne, M., Hakanen, J., Rautava, M. (1999). *Can Suicide Be Prevented? The Suicide Project in Finland 1992-1996: Goal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STAK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Welfare and Health.

A Critical Review of the Study Method of Psychological Autopsy in South Korea

Kang, Jun Hyeok
(Sungkyunkwan University)

Social interest in 'psychological autopsy' has been increasing due to the high suicide rat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eck up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Korea psychological autopsy study method conducted so far.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total 15 articles about 'psychological autopsy'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general review method of literature. The author classified the articles according to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lso, the researcher checked fundamental purpose and the original research method of psychological autopsy to compare studies mutually. Based on the results, a research framework was constructed.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study was comprised of 'the type of research', 'efforts to enhance reliability,' and 'the role of the researchers.' As a result, this study pointed out that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was lack of real application about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lack of efforts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research and lack of the researcher's rol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researcher suggested that a practical study and a depth interview study should be spread, new strategies to secure for rigor of research that is suitable for the psychological autopsy be established and it should be needed for researcher to conduct a direct interview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Keywords: Suicides, Psychological Autopsy, Korea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Literature Review